

가정·여성

86. 9. 12

“아-태 여성지위 강화하자”

국가기구회의 16일 개막...25개국대표 참가

베이징세계회의 이후 첫번째 지역별모임

권정숙 기자

베이징세계여성회의 개최 1년을 맞아 이 회의의 행동강령 실천상황을 점검하는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난달 22~24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한국여성비정부기구위원회가 제2차 동아시아여성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정무제2장관실이 오는 16~1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담당 국가기구회의’를 연다.

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스캡)와 공동주최하는 이 회의에는 중국 일본 타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태지역 25개 나라 대표와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여성관련 유엔기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베이징세계회의에서 열기로 결의한 첫번째 지역별 국가기구회의다. 이에 따라 I.M 니콜라스 필리핀 대통령 직속 여성역할위원회 위원장, 키트 수쿰 캄보디아 여성부 정무장관, 투루옹 미호아 베트남 여성연맹 회장, 굴산 아라 방글라데시 여성아

동부 장관 등 이 지역 여성담당 정부 고위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어떻게 하면 여성담당 국가기구를 강화할 수 있는지로, 각국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고 이 가운데 가장 효율적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아-태지역의 경우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가, 한국이나 캄보디아처럼 별개 부처로 독립한 경우와 여성청소년부, 여성아동부 등 유관업무를 함께 다루는 경우(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처럼 총리실에 딸린 경우 등이 다양하다.

이와 함께 회의는 △여성 문제를 다룰 국가기구와 기타 정부기구를 설립하거나 강화하고 △법률, 정부정책 및 각종 사업에 남녀평등 관점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성별문제와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축적하는 것 등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가기구와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와의 협력방안,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문제도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마지막날인 19일 참가국

대표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아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윤덕 정무2장관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여성담당 국가기구간 연대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이 지역 국가들이 여성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열린 동아시아여성포럼에서도 주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베이징회의 이후 가시화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정책과제들이 논의됐다.

포럼은 △동아시아 민간여성단체들간의 연대망 강화 △일본이 군대위안부 제도를 전쟁범죄로 인정하고 국가차원의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도록 압력을 가하며 △동아시아여성포럼을 정례화해 2~3년에 한번씩 열 것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손봉숙 한국여성비정부기구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결의안은 베이징회의 이후 동아시아 민간여성단체들의 첫번째 성과”라며 “특히 여성포럼을 정례화한 것은 국제연대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세계여성회의 이후 각나라들이 행동강령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베이징여성회의 비정부기구 부문 개막식 광경.